

# 민주당 “정권교체 책임자” 국민의당 “녹색돌풍 다시한번”

## 광주·전남 시도당 대선 본선 대비

### 양당 경쟁구도...사활 건 총력전 선대위 구성·워크숍 준비 등 분주

‘이제 본선이다’ 제19대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각 정당의 경선 레이스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지역별 시도당이 대규모 선거대책위원회(본부)구성에 나서는 등 본선 준비에 들어갔다.

경선은 대선 후보 선거캠프 중심으로 치러지지만, 각 정당의 대선 후보가 최종 결정되면 정당 중심으로 본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경선 과정에서 두 당의 선두 주자에게 힘을 보태는 전략적인 선출을 한 ‘호남민심’을 잡기 위해 대선 막판까지 호남에서 총력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과거 대선과 달리 이번 19대 대선은 호남에서 양당 체제로 치러진다는 점에서 양당이 사활을 건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

우선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이달 중 시도당에 대규모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또한, 각 지역위원회별로는 선거 사무소를 마련하고 선거지원체제를 갖추는 등 본선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시·도당은 선대위에 시민사회 진영을 비롯한 경제·노동·여성·종교계·학계 인사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이어 대선 후보가 최종 결정되는 다음



토론회 준비하고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목동 SBS에서 열린 마지막 민주당 대선주자 합동 토론회에서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지지 호소하고 국민의당 안철수 경선 후보가 30일 오후 대구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대선 후보 대구·경북·강원 권역 합동연설회에서 정권발표를 하며 두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달 3일을 전후해 선대위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선대위는 정책기획과 총무, 대외협력 등 4개 본부로 구성된다.

이형석 광주시당 위원장은 “2012년 제18대 대선에서는 시민사회 진영을 중심으로 한 후보 캠프가 본선을 이끌었다면, 이번 대선은 시도당 중심의 공(公)조직이 컨트를 타워가 돼 선거를 이끌 것이다”면서 “특히 이번 선거는 국민의당 후보가 있다는 점에서 가능한 많은 분야 인사들을 선대위에 참여시

킬 계획이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도 발 빠르게 본선 준비를 갖추고 있다. 지난 4·13 총선에서 호남의 ‘녹색돌풍’을 또 한번 일으키겠다는 각오로 일찌감치 전략 마련에 나섰다.

광주시당은 지난 29일 권은희 위원장 주재로 각 지역위원회 사무국장들이 모여 1차 전략회의를 했다.

시당은 조만간 지역위원장을 비롯한 지역위원회 관계자, 지방의원, 핵심당직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워크숍을 열고 대선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다음달 4일 후보가 최종 확정되기 이전 시·도당 중심의 선대본부를 꾸릴 예정이다. 시도당은 대선 후보가 5일 광주를 찾아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한 뒤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또한,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 당시 여야 후보들의 광주·전남 전략과 일정 및 동선 등을 파악, 이를 분석해 새로운 전략을 만들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경선 과정에서 지지와

견제를 통한 치열한 양당 경쟁구도를 만들어 놓은 뒤 호남의 미래를 견인할 수 있는 후보를 대선 막판 선택하겠다는 ‘호남민심’의 지지를 얻기 위해 선거 막판까지 총력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대선 후보를 선출한 바른정당 광주시·전남도당도 굳은 결의를 보이고 있다. 하현식 시장 위원장은 최근 시도당 대의원과 함께 한 자리에서 ‘파부침주’(破釜沈舟)라는 고사성어를 인용, 당원들의 결의를 다진 것으로 전해졌다. /최권일기자 cki@

## 국민의당 경선 누적투표 20만명 넘길까

### 수도권 흥행몰이 총력...기초단체 1곳씩 투표소 설치 등 검토

국민의당이 수도권에서의 경선 대박을 통해 상승세를 이어 나가겠다는 기세다.

수도권에서 최소 10만 명 이상이 경선에 참여한다면, 누적 투표자 규모가 20만 명을 넘기면서 국민의당 바람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전체 7회의 전국 순회 경선 가운데 30일 현재, 광주·전남·제주와 전북, 부산·경남·울산, 대구·경북·강원 등이 마무리 됐다. 경선이 막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누적 경선 투표자 수는 11만 명을 넘어섰다.

국민의당은 호남 경선 대박에 이어 영남권에서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었다는 자체 평가를 내리고 있다. 영남권은 상대적 취약 지역이고 평일에 경선이 치러졌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강원 등에서 지역 당원 규모에 맞는 1만 명이 이상이 참여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은 수도권 호남 민심을 중심으로 민주당 문제인 후보 견제 심리가 발동하고 국민의당 바람에 대한 기대감이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수도권에서 10만 명 이상이 경선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경기도지사 지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수도권에서 막판 대역전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도 경선 흥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 경선(경기·인천 1일, 서울 2일)이 주말에 치러지는데도 경쟁이 치열해 질수록 경선 참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경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에 1곳씩 설치하는 투표소 수를 늘이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수도권 당원은 총 5만여 명에 이르고 지역위원회도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다”며 “국민의당 바람에 민주당 견제 심리가 상호 작용한다면 수도권 경선에서 10만 명이 이상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안철수 대세론’이 조기에 자리 잡으면서 경선 흥행성이 점차 약해져 국민의당 바람이 이어지기 힘들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경기·인천 3만~4만 명, 서울 3만 명 정도가 참여하는데 그치면서 목표치인 10만 이상의 경선 참여가 무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트위터에 “지역위원장님들 공직선거법 준수하며 투표 독려하세요”라며 공개적으로 투표 독려와 참여에 나서줄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세월호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 3년→10년

### 국회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등 79개 법안·결의안 1건 의결

세월호 참사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등 79개 법안과 결의안 1건 등 모두 80개 안건을 가결했다.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안은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인 3년 안에 세월호 선체 인양과 수습 작업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청구권 시효를 10년으로 늘리는 특례 조항을 담았다.

이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인 3년 안에 세월호 선체 인양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미수습자 가족이 수습 이전에 배·보상과 소송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고려한 조치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미수습자 가족들은 선체 인양과 수습 작업이 마무리된 이후에 소송 제기 결정을 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미수습자의 배상금 신청 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국회는 청년 정규직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채용 1인당 1000만원의 세액 공제혜택을 주고 자녀장려금 신청 재산요건을 현행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으로 사용되던 평가소득(성·연령·재산·소득·자동차로 추정된 소득)을 폐지하고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높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역시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외국 어선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공무집행 중 공용화기의 사용을 확대하고 검문검색 위반 선박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해양경비법’ 개정안(바른정당 황영철 의원 등 발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합의 도출을 마치도록 규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가결됐다.

이밖에 국회는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한 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하자보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과 범죄 또는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도시 공원 내 주요 지점에 CCTV와 비상벨 등의 설치를 의무화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작년 6월 개원한 20대 국회는 이날까지 모두 1312건의 법안을 처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592건을 통과시킨 19대 국회와 비교해 121.6% 급증한 실적으로, 제출건수 대비 처리율도 21.0%로 19대 국회(14.4%)보다 개선됐다.

/연합뉴스

여행길의 즐거운 동반자!!  
광주광역시동구 금남로5가 151-번지 1층  
Tel. (062)234-3222 Fax. (062)234-3141

NAVER **조이투어** 검색

2억 영업보충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http://www.joytour.kr

대표이사 최금환

**봄특선 벚꽃구경~ 무안에서 떠나세요!**  
**무안출발은 조이투어로~**

관광·휴양·온천·체험·골프 여행은 무안국제공항에서 출발하세요~!!  
일본여행/국내·제주여행/해외여행 전문여행사 조이투어 www.joytour.kr

**항공왕복 북큐슈 2박3일 “봄” 상품 [매주 금요일 출발/3월 31일~6월 4일]**

〈북큐슈 정통〉	벵부·유후인·후쿠오카·기타큐슈	1인	579,000원~
★한정특가★	3/31, 4/14 북큐슈 여행	1인	499,000원~
〈아마구치 정통〉	아마구치·하기·시모노세키·기타큐슈	1인	799,000원~
〈우레시노 정통〉	우레시노·가라초·후쿠오카·기타큐슈	1인	799,000원~
〈골프상품〉	기타큐슈 골프	1인	999,000원~

※ 골프상품 인선, 단독은 문의바랍니다.  
※ 4/28, 4/30, 5/3, 5/5은 골든유티기간이므로 별도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항공/선박 편도 북큐슈 “봄” 상품 [매주 일·화·수요일 출발/4월 2일~6월 6일]**

〈일요일 출발〉	3박4일 항공 + 선박 (선착순 한정 30명)	1인	399,000원~
〈화요일 출발〉	3박4일 선박 + 항공	1인	499,000원~
〈수요일 출발〉	2박3일 선박 + 항공	1인	399,000원~
〈올레길〉	산악회를 위한 큐슈올레길 2박3일	매주 수요일 출발	1인 399,000원~
〈항공/선박〉	후쿠오카 골프 36H 3박4일	1인	799,000원~

**무안 → 다낭 전세기 “봄” 상품 [매주 수·토요일 출발/4월 19일~6월 24일]**

1. 항공 + 에어텔	1인	749,000원~
2. 다낭·호이안·후에	1인	799,000원~
3. 다낭·후에·밤타·호이안트레킹	1인	849,000원~

**항공·선박 왕복 제주도 “봄” 상품 [매일 출발/3월 24일~7월 20일]**

〈광주〉	제주도 웰빙여행	1인	299,000원~
〈목포〉	선박왕복 제주도 여행	1인	189,000원~

※ 제주상품은 식식 2회, 옵션은 포함되지 않은 가격입니다.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제2003-1호] 이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

● 공동조건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지보험 가입(해외상품:1억원,국내상품 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철버스/전지역 ●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억원 영업보충보험 가입 / 여행공제 가입업체 ● 예약시 계약서(회사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비없음(단,기시/가이드봉사료,선박관광,각국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 상품에 따라 다름